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sup>0</sup>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2	2.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 <sup>+</sup>	1	0.681
	(3) 안전 및 환경	3			
	㉞ 환경보전	1	B <sup>0</sup>		
	㉞ 재난 및 안전관리	2	B <sup>0</sup>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5	D <sup>0</sup>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sup>0</sup>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㉞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㉞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 <sup>+</sup>		
	㉞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 <sup>0</sup>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sup>0</sup>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㉞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문화 조성	1	B <sup>0</sup>		
	㉞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	1	B <sup>0</sup>		
(2) 국민소통			1.5	1.25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특점
주요사업	1.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1)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7	6.553
	(2)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성과			4	4.000
	(3)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4	3.866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3	3.000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4	4.000
	(4)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sup>0</sup>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6	5.017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3	2.458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b>전체 합계</b>		<b>56.5</b>		<b>41.5</b>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sup>0</sup>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sup>+</sup>		

## 1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

- 기관은 정책변화, 경영환경 변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수립하는 과정에 내부 TF와 외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년도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미션과 비전은 유지한 상태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정립하였는데, 핵심 가치와 전략 방향은 3년 연속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전략적 방향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영목표가 2019년에 재설정(4개에서 5개), 2020년에 5개 지표 모두 변경, 2021년에 4개로 축소하면서 지표 모두 변경하여,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할 경영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영전략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되, 해당연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롤링하여 대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목표 가운데 청소년 활동 체감율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다수의 청소년 고객에 대한 설문척도를 중장기 경영목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척도로서의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응답률이 확보되고 고객의 연령이나 성별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연도별 비교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전략기획 지표의 성과지표를 계량 6개와 비계량 3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연도의 목표달성도와 그 결과에 따른 환류 활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 지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전략실행력 강화지표에서 경영전략과 조직 고유지표의 일치도가 약 33%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일치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

- 기관은 신규사업 선정과 미래대응과제 발굴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해 미래대응방향을 설정하고 대응방향별 과제 pool을 도출하고 정합성, 미래확장성, 시급성의 평가를 통해 미래대응과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미래과제 pool에 상위수준의 포괄적 과제부터 세부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차원의 과제 또는 사업으로 pool을 구성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평가내용의 취지를 감안할 때 미래대응과제만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관의 전체 기능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고 신성장사업(또는 미래사업)과 기능을 조정할 사업을 발굴해서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자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수입이 56% 감소하였으나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자체수입을 23억을 확대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청렴, 윤리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이행하고 부패방지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외부청렴도 점수가 상승하고 3등급 평가를 받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청소년 공간 데이터를 네이버에 연동하여 포털을 통해 청소년 전용공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유업무와 신기술을 연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객 접점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3) 리더십

- 기관장은 자율과제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율과제인 ‘청소년활동 디지털화’의 성과지표를 수련시설 디지털 성숙도로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경영계약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성과목표가 기관의 전략 방향, 조직 KPI와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재설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계량지표의 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절차, 단계, 행동 등으로 구체화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율과제인 청소년활동 디지털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청소년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을 위해 개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동기를 부여하고 부패방지 지침 선언 등 윤리 활동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종합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실현하기도 했다. 다만, 내부청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내부적으로 조직 및 인사관리, 일하는 방식,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청렴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성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장은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설명을 제공하고 비상임이사 전용 이메일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율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SG 경영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관장이

디지털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E 측면에서의 고유사업과 연계된 구체화된 사업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B<sup>0</sup>”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 구현

### (1) 일자리 창출

#### 【계량 부문】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100.000%	100.000	2	2.000

#####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00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소관 부처 평가결과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0.5	100.000	0.500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5	100.000	1.500
<b>계</b>	<b>2.0</b>	<b>100.000</b>	<b>2.000</b>

## 라. 추세분석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속 100점을 획득하다가 2020년 84.502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100점을 획득하였다.

## 【비계량 부문】

-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수립 및 달성과 관련하여, 기관은 일자리 창출 실행력 향상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공동 일자리 상생추진단 회의를 통해 기관의 2021년도 일자리 추진 방향 및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 청소년활동 기관의 경영 여건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 전략과제로 민간시설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다만,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실적 대비 2021년도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중장기 목표설정에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직원에게 대한 사전적인 의견수렴 활동 외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공유 및 환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관은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확대된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운영하였다. 다만, 자체수입 감소 등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정·현원차가 증대된 부분은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직율이 높은 상황에서 결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인턴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도 결원인원 충원과 연계하는 부분보다, 채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인턴 활용을 통한 채용연계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 비정규직 운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이윤 설정 및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고려 복무기준을 정비하여 전년도 자회사 운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여 협의 안전 및 개선실적을 확대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다만, 로드맵 상으로 2021년도에 완료된 공무원의 임금상승에 대해 그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와 관련해, 기관은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해 전년대비 46.2%가 상승한 513개의 민간일job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설별 전담 인증심사원 배정을 통한 행정 간소화 지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조달 및 위탁사업을 통한 간접일job의 창출 실적의 개선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측정 및 검정에 대한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기관은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28개를 창출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기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청소년시설의 자원 개방을 통한 스마트 팜 및 드론, VR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민간일job 지원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 위한 세밀한 계획수립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계량 부문】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68.100%	68.100	1	0.681

## 나. 평가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0.681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소관 부처 평가결과 각각 평점 0점과 96.111점을 획득하였으나, 국가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0.3	0.000	0.0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0.5	96.111	0.48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0.2	100.000	0.200
계	1.0	68.100	0.681

## 라. 추세분석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2017년 평점 100점을 득점하고 2018년 80점으로 다소 하락한 후 2019년, 2020년 연속 100점을 달성하였으나, 2021년 0점을 획득하였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으나, 2021년 96.111점을 획득하였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2017년 84점, 2018년 73.333점, 2019년 60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과 2021년 100점을 달성·유지하였다.

### 【비계량 부문】

-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기관은 응시자 및 심사위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2021년도에는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세부 평가항목 개발, 채용절차 검증 강화, 응시자의 정보비대칭 완화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채용비위 발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채용절차점검위원회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내부전문가를 활용한 채용 직무별 토론문제 출제 등 직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다만, 응시자의 제척회피 신청서 제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블라인드 채용 강화에 대응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의 회피·제척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기관은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인턴 채용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한 실적이 확인된다.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3명 채용한 부분도 파악된다. 전년에 지적되었던 고졸 채용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년대비 1명 증가한 채용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청년인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의 채용연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채용규모를 고려할 때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비율의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여성채용률은 전년도의 42.9%에서 과반수를 넘어선 55.2%로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도 42.5%로 증가되고 있다. 다만,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22.6%로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나, 전년대비 개선 정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다. 여성채용 및 여성직원 비율 개선 수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적절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처우개선을 위한 연계계획 수립의 의무화 및 일반정규직 대비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임금인상률의 적용 노력이 확인된다. 고졸 직원에 대해서도 기초역량 향상 교육 및 직무중심 심화교육 개선 실적이 파악된다. 다만, 고졸 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제공 외에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임원임명의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기관은 14명의 전체 임원 가운데 5명의 여성임원이 선임되고 있어 44.4%의 높은 여성임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관장의 임명권한이 작용하는 상임이사 등의 임원 임명과 관련해, 여성임원 후보군 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sup>”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

#### ㉠ 환경보전

-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감축률 34.72%로 목표 감축률인 32%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실적의 목표 미달 등으로 인해 종합 목표치의 93.45%를 달성하였다. 녹색제품 구매 부문에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와 관련하여,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청소년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년대비 참여인원이 6.1배 증가하는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환경인식 변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친환경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의 환경경영 추진체제와 관련해,

본원의 환경보전추진위원회와 각 사업장 대상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환경경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보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 ㉔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종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방안을 강화하였다. 추가적인 안전보건관리자의 채용 및 본원 등 3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실적도 인정된다. 이러한 안전경영관리 노력의 결과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상대등급 기준으로 A등급을 획득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기관 내 안전전담 조직 외에도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 개선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 및 성과와 관련하여, 기관은 청소년 안전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안전 점검률을 제고하고, 안전 컨설팅 수혜대상을 전년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활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한 실적이 확인된다. 디지털·비대면 안전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 증액 부분도 기관의 노력으로 파악된다. 다만, 청소년활동 안전강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동결된 상황에서, 확대된 사업량에 비해 예산제약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의 마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재해 피해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중앙수련원과 본원에 각각 추가적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의 활용을 개선하였다. 위험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전 부서 및 공정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발굴한 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양한 근로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건강지수(EHP)가

전년에 37.50점에서 2021년에는 46.25점으로 상승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단체협상을 통해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및 제안 활동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차사고 개선의견 실적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능동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기관은 국립청소년시설 노후 생활관 리모델링, 고객지원용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에 대한 안전예산을 전년대비 76.8% 확대 편성하였다. 도급사업 안전지침을 수립과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협의·개선,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도급사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기존의 DB보안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자동화된 보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보안 전담 인력 채용 및 정보보안팀 조직 신설을 통해 정보보안 업무역량을 강화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대해 전년대비 17.88점 상승한 60.97점을 획득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평가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5.48점이 상승한 93.00점을 획득하여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100.000%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중소기업생산물, 기술개발생산물,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을 각 소관 부처 평가를 반영하여 3.000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중소기업생산물, 기술개발생산물 등 7가지 구매 실적 모두 목표치의 실적을 달성하여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중소기업생산물	0.8	100.000	0.800
기술개발생산물	0.2	100.000	0.200
여성기업제품	0.2	100.000	0.200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0.4	100.000	0.400
장애인생산물	0.8	100.000	0.800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물	0.2	100.000	0.20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0.4	100.000	0.400
<b>계</b>	<b>3.0</b>	<b>100.000</b>	<b>3.000</b>

라. 추세분석

- 중소기업생산물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81.850점, 2018년 100점, 2019년 93.000점, 2020년 100점, 2021년 100점을 달성하였다.
-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3대 부문 6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기관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 지원 및 미니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김제시와 여성가족부, 강원도와 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 14개 공공기관 등과 각각 협업하였다. 다만, 추진사업의 실제 내용과 명시적 목표의 개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의 경우, 이와 더불어 가족 단위 김제지역 방문객을 위한 숙박 관광 패키지를 발굴하는 등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현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립청소년시설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지역 밀착형 안전체제를 강화하였다. 국립시설 지역 기반 친환경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미니플라스틱 수거 캠페인과 청소년 대상 업사이클링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다만, 사업성과

- 관리는 기관이 기여한 지원활동의 내용, 예산, 인원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조달청 중앙조달활용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 지킴이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다. 청렴실천과 청렴문화확산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역량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계약관리부문 외부청렴도가 다소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인구감소지원 관련 사업으로 김제, 고흥, 봉화, 평창 등에서 안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다만, 실제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원, 돌봄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문하여 안전컨설팅 및 시설환경개선 인증 이벤트, 교육지원, 마을방역(EAP)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였다. 협업사업의 성과관리는 기관의 구체적인 참여와 기여, 기관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기업동반성장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박람회 적극 홍보, 국립청소년시설 협력이익 공유제 확대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몰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애로청취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최소시간 기준완화를 조치하였다. 스마트팜, 수중드론 등 정부선도사업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보안솔루션과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의 혁신시제품을 시범구매하였다. 다만 구매중심의 지원보다는 기관의 전문영역 및 주요 사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을 공정한 과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융합한 청소년 활동교육모델을 개발하였고, 기관 역량을 활용하여 참여기회 확대, 제도지원, 역량 강화 교육, 판로 확대 등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구매중심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

- 기관은 윤리경영개선을 위해 KYWA 청렴윤리경영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2022~2026년 중장기 감사와 청렴윤리경영계획에 반영하였고, 부패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인증 등의 노력을 하였다. 청렴윤리경영 혁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리규범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청렴윤리경영과 관련된 일상감사, 예산집행, 공직윤리, 연구용역, 인사복무, 구매계약 6개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 갑질근절과 임직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등은 외부평가에서도 다소 향상 평가결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점검 등의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클린신고센터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0.3% 감소하는 등 청렴문화조성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제도의 활용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청렴도는 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하위권이다. 내부청렴도 중에서도 관행화문제, 외부압력 및 청탁로비 등 청렴문화 및 업무청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해 현장 중심 및 실무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관리 내외부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직원참여 제도개선으로 성과관리 수용도가 향상되었다. 다만, 외부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인사위원회의 위원 제척 및 기피 규정 등은 명확하게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부터 기관의 사무처장, 정책기획이사, 감사실장 등 주요 인사가 여성가족부 출신으로 총원되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인사제도 신뢰성과 도덕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관이 내부청렴도에서 부패문화 등 조직문화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임이사 및 개방형 직위 인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합의된 혁신방안 모색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심사절차에서 경미한 이유로 미인증시 단순

누락이나 오탈자의 경우 보완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자의 행정부담을 감소시켰고, 미인증보완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지도인력 양성사업은 주무부처협의를 통해 개인별 보수교육참가비를 경감했고, 수료인원이 증가했다. 다만,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해결 내용과 방식은 유사한 문제들을 전수조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 기관은 윤리경영제도개선 및 인사조직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영진 의사결정과정을 조직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 기관장 메시지 발송, 주요 간부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공유 등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실제 수행 빈도도 빈약하다. 직원 의견청취 등이 또다른 업무연장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안 발굴이 필요하다.
- 내부견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진단, 부패리스크 평가, 경영 검토를 수행하였고, 부패방지를 위한 인증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내부 심사원을 양성하고, 타 기관과 교차감사를 추진하는 등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교차감사를 통해 내부 견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우수기관 등 감사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교차감사를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회계이슈 및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인회계 결산지원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명시된 외부감사인 결탁금지원칙에 따라, 외부감사인들이 여성가족부 관련 활동 경력자들 위주로 구성되기보다는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는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외부 전문가그룹 및 연구용역이 특정 부처 출신, 소수의 전문가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여성가족부 특정감사에서 진흥원 직원과 업체간 특수관계 및 계약

체결·수행 부적정으로 관련자 1인만 중징계하고 그 외 계약업무 관계자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 하였다.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위 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등 적극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명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0</sup>”로 평가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기관은 단위조직·인력 관리기준 마련 및 조직관리 상시기능 점검 역할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전-전략 방향에 근거한 경영환경 분석, 시사점 도출을 바탕으로 직무·조직·인력 재설계 등 신경영전략 실행 촉진을 위한 조직 운영 방향 재정립, 조직 기능·성과 상시 점검, 외부전문가 진단을 통한 기능점검을 강화하였다.
- 기관은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인적자원 역량 차이 분석에 기초한 인력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량 및 미래 전략 분석, 인력 전망을 검토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이 자체 조직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능진단 및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산출하고 정원조정 및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에 대한 부서 자체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 검증, 적정성 검토, 정원을 발굴하고 재배치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출자회사에 대해 모기관에 준하는 안전, 인권 존중, 일·가정 양립, 윤리와 같은 사회적 가치 역량을 갖추도록 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사회사의 인권, 안전 중심의 책임경영 안착 및 사회적 가치 역량 함양을 지원하였다. 중장기 HRD계획에 HRD 전략 방향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연간 HRD 전략 방향과 전략과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HRD 목표와 전략과제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간 HRD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전략 및 HRD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기관은 교육훈련비 예산이 전년 대비 1/3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예산집행률도 70%대에 불과하여 교육훈련의 양이나 질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교육훈련 예산과 집행에 대해 기관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온라인 연수시스템 통합 및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 효과를 거두고 직무별 교육 확대로 교육비 집행율을 전년대비 23% 향상시켰다. 기관은 직무교육 요구 조사를 통해 필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설계하고, 직무별 최소 40시간 교육과 평가검증 등 자격 확인을 통해 직무전문가를 양성하였다. 기관이 직무전문가를 활용하여 역량나눔 프로젝트 및 CoP, 사내강사 활용을 확대하고, 기관장이 함께 교육·연구하는 역량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KYWA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생산콘텐츠를 상시 공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성과관리 진단 설문조사 결과 성과관리 수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직원 참여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경영목표 기여수준 분석을 통해 중단기 11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였다. 기관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충실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내용과 수준을 진단·환류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설문평가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만, 기관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외부 성과관리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역량 진단을 통해 부족역량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개선이 조직의 역량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전문직위제 지원자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경력개발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직위 대상 경력개발경로를 설계하고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개선하였다. 기관은 특별승진제 시행 실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별승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특별승진 실적이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개방형계약직제 12.8%, 민간전문가 전담직위 4개, 2개 기관과 인사 교류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일·가정 양립제도 만족도와 제도에 대한 직원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 신설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균형 포용성장 컨설팅과 임직원 여가생활 조사를 실시하여 계층 및 상황별 맞춤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한 노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사 일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공운법 제39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결측 처리하였다.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

#### 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규모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18개 직무군 116개 직무를 27개 직무군 87개 직무로 직무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인재개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무기술서에 대부분 자격에 학력 무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직무기술서 정보를 충실하게 제시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021년 11월,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직무가치 평가결과에 기준한 5개 직무등급별 분류를 완료하였다. 직무등급표의 직무평가 점수가 225점부터 81점까지 밀집되어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요소별 직무점수를 늘려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직무급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직무등급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직무평가와 연계된 임금밴드를 설계하였다. 단계별 차등수준은 월1~2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도입 초기인 점과 직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연공성을 완화해줄 정도의 유의미한 급여의 차이로 보이지 아니한 점은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직무급 도입에 대한 경영전략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공동 TF운영에 합의하였으며, 노사공동 참여의 임금체계개선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직무급 공감대를 제고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에 잠정 합의하는 등 직무급 도입 기반을 마련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sup>”로 평가한다.

## ④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기관은 생애주기별 지원, 건강·안전 지원 복리제도 개선, 유사기관 예산 및 복리후생 담당자 간의 상호 자문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와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자연권 수련시설 등 내부자원을 활용한 가족친화적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유사기관과의 숙박·여가시설 교류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관은 임금피크제 인건비 충당률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의 포괄 내용을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적시하고 인건비 충당률을 개선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재취업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고령친화 및 시니어 적합업무 부여, 전직·창업 교육, 전직지원금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재무환경 악화로 복리후생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도입이 가능한 복지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감염 위험 보호를 위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였고, 안전한 근무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안마기를 비치하고 힐링도서 코너를 신설하였다. 도시락 식사가 확산됨에 따라 휴게실을 확충하고 물품을 비치하였고,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친화 복지를 시행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직자에 대한 보수 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별도 직군의 적합 직무를 심의하고 있으며, 별도 직군 직무전환자를 위한 직무교육과 퇴직 후 전직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이 교육대상자를 별도 직군 대상에서 임금피크제 및 시니어직원까지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차별 교육과정을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미흡하므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관리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목표부여	1.4% 이내	1.048%	100.000	3	3.000

###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2021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1.4% 이내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21년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1.048%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지속적인 인건비 관리 노력을 통해 증원소요 인건비 등을 반영한 2020년 총인건비 12,573백만원 대비 2021년 총인건비 12,704백만 원으로 1.048%의 인상률을 달성하여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7년 4.796%, 2018년 2.602%, 2019년 2.607%, 2020년 2.758%, 2021년 1.048%로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목표치 이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3) 노사관계

- 기관은 노사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소통 채널별,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별 효과성 분석을 통한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전년도 경영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통환경 분석과 효과성 검증·진단을 통해 소통 채널을 개편하고,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내실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지역상생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협력에 기반한 근로환경 개선, 이를 위한 노사공감대 형성이라는 현안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전략체계를 3대 추진전략과 6대 과제로 재설정하고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시설개방, 지역 소상공인 지원, ESG 경영 실천 노력 등 노사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노사 간 갈등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주의-갈등실무팀, 위험-갈등해결팀, 심각-갈등조정팀으로 단계별 노사협의팀을 운영하고 있다. '21년에는 갈등 예방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요 현안 중심의 노사 공동협의체를 신설 운영하였고, 원장과의 대화, 세대공감 소통 간담회 등 상하,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노력을 하였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이사회 참관 시 발언권이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이사제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이사회 참관을 하지 않고 있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므로 노동이사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통역량, 전문역량, 리더역량으로 구분하고 필수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기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LMS 플랫폼을 활용하고 개인별 수요에 부합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마이크로러닝을 도입하여 운영한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공통역량 교육과정 중 법정교육, 사회적가치, 디지털 역량이 노사관계와 관련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직원의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관심 유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노사협의회 운영 전 노동조합 대의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던 방식을 온라인 상시 의견수렴 창구 대나무숲을 개설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노무 담당자와 노사협의회 대의원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별 시급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여 대응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환류한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B<sup>0</sup>”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노력 및 성과

#### ㉠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문화 조성

-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혁신과제 도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및 사업별·부서별 진단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점검을 하였다. 기관은 전년도 병목부분, 장애요인, 내부역량을 고려한 과제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병목부분·장애요인 분석 및 내부역량 수준진단 결과환류를 통해 1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실효적인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표를 제거하고 신규지표를 추가하여 32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구성원들과 적절한 피드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피드백·공유를 실천하였다.
- 기관은 진단분석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환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혁신 중점과제와 연계된 전문·심화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혁신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기관의 혁신방향 및 전략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은 낮은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혁신방향 및 전략공유 부족, 직원 대상 혁신교육 보완 필요, 혁신

계획 수립 시 직원 참여 부족으로 진단하고, 교육, 게시판 공유, 설문조사, 계획 수립 과정 참여의 노력을 하였으나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청소년분야 인재양성 및 지도인력 디지털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개방 및 미래청소년사업 기반 강화를 혁신 중점과제로 1차 선정하고,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KYWA 공직윤리 강화를 추가 지정하여 16개 혁신과제별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이행율은 81.3%로 높지 않으므로 원인분석을 통한 환류활동 등 성과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의 기관장이 청소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의 디지털-테크놀로지 모델 강의, 청소년·지도자 대상 미래변화 진로교육 특강, 혁신리더 아카데미 강연 등을 직접 진행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주도 탄소중립 활동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민·활동 현장의 혁신 촉발을 위한 애자일 현장경영을 실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 ㉔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

- 기관은 국민공감 확대 및 체감적 의제 발굴 및 소통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핵심니즈 파악을 통한 소통채널 운영, 국민의견을 반영한 과제 발굴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관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접수되는 의견이 없어서 유선, 설문,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제개선 제안 방식에 이용하여 규제애로 등을 접수·처리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적극적 홍보, 규제애로의 발굴 등을 통해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정부부처에서 학교와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 전문가 및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를 제기하자 자원순환 및 환경보존의 중요성 등 환경교실 운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디지털 교재 개발 및 지원, 전국 탄소중립 가치행동 캠페인 운영을 통한 탄소 절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교육청 연계 플로깅 및 제릴라 가드닝을 전개하여 친환경·탄소중립에 청소년 참여가 증가하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웹서비스에서 전년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원문공개율이 54.8%로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원문공개의 세부 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sup>0</sup>”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

### ㉠ 경영정보공시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목표부여	별점 0점	별점 0점	100.000	1	1.000

####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기획재정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을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배분·평가하였다. 점검결과 2021년 별점은 0점으로 1.000점을 득점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총 3회 운영되었고, 점검 시 공시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아 무벌점을 달성하였다.

##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별점은 2017년 4.5점, 2018년 6.5점, 2019년 13점, 2020년 3점으로 등락을 보였으나 2021년 무별점을 달성하였다.

## ㉔ 국민평가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100	고객만족도 점수 : 84.592	50.000	0.5	0.250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0.250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실적은 5개 평가대상 사업의 과거 3개년 평균점수와 준정부기관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목표점수에 미달하였다.

##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7년 90.6점, 2018년 90.4점, 2019년 90.3점을 유지하다가 2020년 81.8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84.592점으로 다소 회복하였다.

## 2 주요사업

- 기관은 '21년 사업을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내실화 사업의 3개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은 청소년 활동의 증진 및 안전지원체계 강화하는 중장기적 사업추진전략을 설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년 기관의 비전을 전면 개편하였는데, 비전과 경영목표 간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롤링을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그리고 경영목표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주요사업별 세부 실행과제와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내외부 경영환경과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선정 과정에서 중장기 전략을 고려한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하고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SMART 분석을 수행하여 성과지표 검증을 거쳐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편된 기관의 비전에 비하여 기관의 성과목표가 다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전략방향을 보다 획기적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다각도로 발굴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현장 회복 3대 과제 설정을 바탕으로 안전정보 제공, 국립청소년시설 방역관리, 활동현장 생활방역 지원을 추진하고 3-step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립청소년시설 활동참여 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사례 0건을 달성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연계 안전 홍보 사업에서 각 콘텐츠별로 노출 효과의 편차가 크고 지속성이 부족하여 안전정책 인지도 향상 효과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1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부여(하향) 방식을 채택하여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는 교육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 (1)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 가. 평가개요

##### 지표산식

○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평점 × 0.6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평점 × 0.4

-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  $\frac{\text{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text{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효익성지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702 최저 : 0.381	0.705	100.000	4.2	4.200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목표대실적	100.000	84.030	84.030	2.8	2.353
합계					7.000	6.553

####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는 국립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사회배려대상 지원활동, 특성화·가족캠프, 청소년단체 활동)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당해연도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 중 인증프로그램 운영 비율'과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를 각각 목표부여(편차) 방식과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하여 0.6과 0.4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7점에 반영하였다.

- '21년도 국립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은 총 481건이며, 이 중 인증 프로그램으로 339건을 운영하여 최고목표 0.702보다 높은 0.705의 실적으로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효익성)를 준용하고 당해연도 조사결과 84.030점을 획득하여 평점 84.030점을 달성하였다. 두 개의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7점 중 6.55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국립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의 인증 운영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변화에 적합한 신규 인증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既 보유 인증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국립청소년시설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전년도 54.128%보다 16.35%p 높아진 70.478%를 달성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는 84.030점을 획득함에 따라 평점 84.030점을 달성하였다.

#### 라. 추세분석

- 국립청소년시설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20년 신규지표로 과거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5.458%, 2017년 41.991%로 상승하다가 2018년 30.084%로 하락 후 2019년 41.283%로 상승하였고 2020년 54.128%, 2021년 70.478%로 크게 상승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는 2016년 87.023점, 2017년 91.479점, 2018년 84.859점, 2019년 87.342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2020년에는 당해연도 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코로나19 결측 기준(과거 3개년 평균과 전년도 실적 중 최소값)에 따라 87.342점을 획득하였고, 2021년에는 84.030점을 달성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단위: 건, %, 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건수(A)	356	443	321	412	118	339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B)	1,004	1,055	1,067	998	218	481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A/B)	35.5	42.0	30.1	41.3	54.1	70.5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87.0	91.5	84.9	87.3	87.3	84.0

(2)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frac{\text{취약계층 활동지원 인원 수}}{\text{국립청소년시설 이용 인원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890 최저 : 0.245	0.891	100.0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국립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국립 청소년시설 전체 이용 인원 중 취약계층(사회배려) 청소년의 활동 지원 비율을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여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국립청소년시설 이용인원 중 취약계층(사회배려) 활동 지원 비율을 산출하며 당 해연도 이용 인원 140,763명 중 취약계층 125,457명을 지원하여 최고목표 0.890보다 높은 0.891의 실적으로 평점 100점을 달성, 가중치 4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써 사회배려 청소년 활동지원 비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별 전문기관 협업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입양가정 청소년 등) 발굴지원 활성화, 국립청소년시설 통합 콘텐츠 신규개발·운영 활성화 및 활동 방식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취약계층 활동 지원 비율은 전년도 56.713%보다 32.413%p 상승한 89.126%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취약계층 활동 지원 비율은 2016년 16.6%, 2017년 15.1%, 2018년 16.6%, 2019년 17.7%로 소폭 변화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6.7%, 2021년 89.1%로 대폭 상승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약계층 활동지원 인원 수(A)	73,479	65,977	71,141	77,086	45,344	125,457
국립청소년시설 이용 인원 수(B)	443,036	437,884	429,725	436,645	79,954	140,763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A/B)	16.6	15.1	16.6	17.7	56.7	89.1

(3) 국립청소년시설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기관의 주요 사업이 과거에 해오던 것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출되어 성과지표가 협소하게 관리되는 문제가 있고 기관의 역량을 고려할 때 기관의 비전 및 전략방향을 보다 획기적이고 다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대응하여 청소년활동 대전환을 준비하고 '20년 미션, 비전, 전략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은 주도적 설계(Design), 다양한 경험(Diversity), 디지털 기반(Digital)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그러나, 기관이 설정한 성과목표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참여확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성과목표는 기관이 전면 개편한 비전에 비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역량 수준에 비추어 기관의 전략방향을 보다 획기적이고 다각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다각도로 발굴하려는 기관의 노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주요사업을 양질의 청소년활동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수련시설에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전략연계성·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SMART 분석을 통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비율, 신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인원, 우수 프로그램 현장 보급 건수, 인증프로그램 운영률, 국립청소년 시설 이용인원, 국립청소년시설 고객만족도라는 6가지 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전문기관 협업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내실화, 공교육 연계 강화라는 3가지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관이 선정한 성과지표는 주도적 설계, 다양한 경험, 디지털 기반 관련한 기관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므로 기관의 지표선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은 활동 운영방식 다변화, 신규대상 발굴, 대외협업 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2.8배 확대하였다. 다만, 기관이 설정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범위에 입양가정 청소년, 난민청소년, 게임중독 고위험 청소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전통적인 경제·사회 계층적 구분에 맞추어 국한되어 있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디자인단 사업에 참여하여, 만 18세가 되어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 자립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활동을 연계해주고 자기 탐색 및 진로직업 설계활동을 제공하였다.
- 청소년활동 개발·보급 사업 관련하여, 기관은 국립청소년시설 특화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위하여 프로그램 품질관리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기관은 프로그램 개발·검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국민참여 기반 검증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프로그램 검증시스템을 강화하였고, 국립청소년시설

활동 효과유의성 검증률이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되었다. 기관은 고객 요구와 시대변화에 발맞춘 우주대항해시대, 해양기술, 코딩 등과 관련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관은 숙소 현대화 등 참여 고객의 편의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청소년시설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만,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기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률이 전년 54.1% 대비 70.5% 수준으로 대폭 향상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방식 온라인 활동 확대, 숙박형 인증활동을 당일형·찾아가는 활동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대외환경 제약에 따른 활동방식 변경 이외에도 인증프로그램의 질적 성과 강화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민간청소년시설 우수 프로그램 13종을 발굴하였으며, 언택트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디지털장비 활용 중심 교육 및 실습을 강화하였다. 기관은 로블록스 기반의 가상 국립청소년시설 구축 및 가상 체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의 국립청소년시설 인지도 확대에 기여하였다.
-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은 충청권 느린학습자 지원 협의체, 강원지역 작은 학교 지원 활성화 협의체, 전라남도 우주과학 문화 확산 협의체, 전라북도 청소년 농생명 교육 공동체, 경상북도 청소년 해양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대외 협력 활성화 활동을 전개하여, 대외협력사업 수혜인원이 전년 대비 56.4% 확대되었다. 국립청소년시설 고객만족도(KCSI)가 1.4점 상승한 91.0점을 획득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타 기관 대비 목표치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기존 비교과 중심의 청소년활동에서 공교육 연계 청소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국 61개교 대상 청소년 친환경 체험활동 교실 운영, 탄소중립 주제 디지털 교재 현장 지원 추진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이 제시한 공교육 연계 청소년활동의 방향이 탄소중립·친환경 등의 영역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층위의 공교육 내용과 연계되어 청소년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참가 청소년 중 7명 취업, 자기주도연구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주도 논문 2종 게재 결과로 이어졌다. 기관은 청소년들의 국립청소년시설 활동참여 환경 개선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 개선 건의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성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의 6가지 계량 성과지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비율, 신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인원, 우수 프로그램 현장 보급 건수, 인증프로그램 운영률, 국립청소년시설 이용인원, 국립청소년시설 고객만족도 지표는 도전치를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이 제시한 계량 성과지표들이 기관이 전면 개편한 비전과 기관의 역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률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이 있어 보이므로 위 지표의 실질적인 제고와 연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전문기관 협업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내실화, 공교육 연계 강화라는 3가지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기관의 역량을 고려할 때 타 기관 대비 성과목표와 대상사업을 단편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관 및 기관의 주요활동에 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므로 홍보활동은 보다 능동화·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에 기반하여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성과지표별로 비교적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전문가 등 외부의 의견을 환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1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2년 목표에 반영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그러나, 기관의 주요사업별 환류활동 또한 주도적 설계(Design), 다양한 경험(Diversity), 디지털 기반(Digital)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하여 다소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관은 새로운 비전이 주요사업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활동의 방향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 (1)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

가. 평가개요

#### 지표산식

○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평점 × 0.5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 평점 × 0.5

$$\text{-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 \frac{\text{실시 인증프로그램 수}}{\text{인증프로그램 수}}$$

$$\text{-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 = \frac{\text{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text{청소년 인구 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588 최저 : 0.348	결측	93.297	2.000	1.866
인증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58 최저 : 0.057	결측	100.000	2.000	2.000
합계					4.000	3.866

\* '20년 결측 지표로 '15년~'19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 및 목표치를 산정함. ('22.4.5, 21년도 주요 사업 계량 지표 실적 및 코로나19 결측 보정 요청, 기획재정부 업무네트워크 시스템 2022-1775호)

#### 나. 평가내용

-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청소년을 늘려 인증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하는 지표로서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와 ‘인증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1년도 기준 전체 인증 프로그램 2,575건 중 당해연도에 실시한 프로그램 수는 686건으로 0.266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은 '21년 청소년 인구 8,306,000명 중 85,362명이 참여하여 0.0103의 실적을 달성했다.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제한이 장기화 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실적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관의 실적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는 결측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결측 기준에 따라 두 개 세부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3.297점, 100점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중치 4점 중 3.86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청소년 증대를 위하여 인증 유입 맞춤형서비스 추진, 비의무인증(자율인증) 비율의 관리 등의 노력으로 인증운영률은 전년도 18.676에서 26.641,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비율은 전년도 0.406에서 1.028로 증가하였으나, 실적은 최하 득점률(20%)을 기록하여 결측 기준이 충족되었다.

#### 라. 추세분석

-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2015년 33.104%, 2016년 31.814%, 2017년 29.742%, 2018년 34.344%, 2019년 46.759%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8.676%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1년 26.641%로 다소 회복하였다.

-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비율은 2015년 3.753%, 2016년 4.656%, 2017년 4.932%, 2018년 5.346%, 2019년 5.735%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0.406%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1년 1.028%로 다소 회복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시 인증프로그램 수(A)	1,201	1,298	1,223	1,212	1,255	474	686
인증프로그램 수(B)	3,628	4,080	4,112	3,529	2,684	2,538	2,575
인증프로그램 활성화(A/B)	33.104	31.814	29.742	34.344	46.759	18.676	26.641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C)	362,300	441,158	456,203	480,577	502,634	34,681	85,362
청소년 인구 수(D)	9,654,000	9,476,000	9,249,000	8,990,000	8,765,000	8,542,000	8,306,000
참여청소년 증대(C/D)	3.753	4.656	4.932	5.346	5.735	0.406	1.028

##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안전교육 참여인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527 최저 : 0.344	0.528	100.0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중 안전교육 참여 인원 비율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1년도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7,676명 중 4,052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최고목표 0.527을 상회하는 0.528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전문기관 연계 현장에 찾아가는 실습 중심 안전교육 확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운영 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43.561% 대비 9.227%p 증가한 52.788%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참여율은 2016년 15.478%, 2017년 15.487%, 2018년 19.237%, 2019년 23.323%, 2020년 43.561%, 2021년 52.788%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안전교육 참여인원(A)	1,302	1,376	1,664	1,937	3,315	4,052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인원(B)	8,412	8,885	8,650	8,305	7,610	7,676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A/B)	15.5	15.5	19.2	23.3	43.6	52.8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frac{\text{안전사고 가중지수}^*}{\text{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times 100$	목표부여 (하향)	최고 : 0.019 최저 : 0.028	0.012	100.000	4.000	4.000

\* 안전사고 가중지수 = 경미건수×1.0+부상건수×1.5+경상건수×3.0+중상건수×10.0

나. 평가내용

- 국립청소년시설의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대비 안전

사고의 유형별 분류(중상, 경상, 부상, 경미)에 따른 가중지수를 목표부여(하향편차)로 평가하였다.

- '21년 국립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건(경미 3건, 중상 1건)이고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13.0점으로 전년도 8.0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최고 목표 0.019% 대비 0.012%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가중치 4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청소년시설 선제적 위험요소 조치, 안전관리 규정·지침 최신화 및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소폭 상승하여 전년도 0.023% 대비 0.011%p 하락한 0.012%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6년 0.141%, 2017년 0.127%, 2018년 0.163%, 2019년 0.108%, 2020년 0.023% 2021년 0.01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안전사고 가중지수(A)	140.5	132.0	160.0	110.0	8.0	13.0
청소년활동 참여인원(B)	99,318	103,723	97,945	101,954	34,238	111,807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A/B)	0.141	0.127	0.163	0.108	0.023	0.012

(4)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별 중장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6개의 실행과제와 12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사업환경 분석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SMART 분석을 통해 계량 6개, 비계량 3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전년도 대비 2개의 지표만 유지하고 나머지 7개는 개선 또는 신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의 구성은 기관의 성과지표 관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유지 지표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지속적인 성과지표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정 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표 선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자원 배분 및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과정이 부족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방법과 평가 주기를 제시하였으나 국립청소년시설 안전사고 가중지수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건수 지표의 경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환류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마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대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현장 회복 3대 과제 설정을 바탕으로 안전 정보 제공, 국립청소년시설 방역관리, 활동현장 생활방역 지원을 추진하고 3-step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립청소년시설 활동참여 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사례 0건을 달성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국립청소년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공모전과 현장점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제거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신규 기관 및 활동 유입 촉진을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비즈니스 창출 모델을 바탕으로 한 고유 강점을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 체험학습 플랫폼 탑재 등 특색있는 인증활동을 개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시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 유입 문턱을 낮추고 심사절차 개선으로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고객편의성 확보를 바탕으로 자율인증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 활용정보를 수요자인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및 교사로 구분하고 각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 및 참여하는 안전홍보단 운영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전 콘텐츠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활동안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과정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정책 서비스 다각화를 위하여 시·도센터 협력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안전정책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였으며, 시·도센터 안전전담인력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활동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연계 안전 홍보 사업에서 각 콘텐츠별로 노출 효과의 편차가 크고 지속성이 부족하여 안전정책 인지도 향상 효과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 모두 '21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청소년활동 안전정보 조회수는 달성률 139.2%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립청소년시설 안전사고가중지수가 경영평가 계량지표인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에 이미 반영되어 평가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목표와 부합도가 높은 보완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 모두 '21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청소년활동 운영 현장 안전지원 강화 사업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지원기반 확장 사업이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노력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비계량지표가

중장기적 관점하에 단계적 달성수준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도전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전반에 걸쳐 내·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년도 자체 평가와 연계하여 환류 내용을 수행하고 당해연도 자체 평가와 연계한 '22년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규제개혁 및 민간영역 제도유입 등 의무인증 외 자율인증 확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활동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인터랙티브 플랫폼 기능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전년도 외부지적사항과 연계하여 환류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수련시설 인증 보유율 하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집단·고위험 위주의 의무인증 보유율 관리에서 소집단 중심의 자율인증 관리지표로 변경하였으며, 자율인증 확대로 인증활동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안전데이터 개방건수 지표를 신설하였으나, 연간 5% 개방 건수 증대라는 계량적 목표 보다는 데이터 개방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 0.4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 0.6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 $\frac{\text{활동정보서비스 페이지 뷰 수}}{\text{활동정보서비스 방문자 수}}$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 $\frac{\text{효과유의성 검증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수}}{\text{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목표부여(편차)	최고 : 17.559 최저 : 12.799	결측	59.040	2.400	1.417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목표대실적	100	100	100	3.600	3.6
합계					6.000	5.017

##### 나. 평가내용

-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의 효과유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와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를 각각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하여 0.4와 0.6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6점에 반영하였다.
- '21년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1,068,781명의 방문자가 13,522,538회의 이용건수(페이지뷰)를 기록하여 12.652회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는 3종의 프로젝트 모두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어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다.
- 다만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의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자제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감소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결측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결측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득점률과 과거 3개년 평균 득점률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적용하여 평점 59.040점으로 조정하였으며, 두 개 세부지표의 가중치 6점 중 5.017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1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외부기관 방문 자제 및 대면 실내 활동 금지 등으로 청소년활동이 위축되어 1인당 이용 건수(페이지뷰)는 전년 15.179회 대비 감소한 12.652회를 달성하였고, 실적은 최하 득점률(20%)을 기록하여 결측 기준이 충족되었다.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를 위하여 방역 상황에 따라 활동 운영 방식을 전환(대면과 비대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모델 개발 등의 노력으로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2016년 12.579회, 2017년 12.509회, 2018년 13.965회, 2019년 15.227회, 2020년 15.179회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2.652회로 감소하였다.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는 2019년부터 도입된 지표로, 20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100%로 3년 연속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어 100%의 실적을 보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활동정보서비스 이용건수(A)	56,474,789	47,239,872	36,463,851	42,876,669	17,997,339	13,522,538
활동정보서비스 방문자 수(B)	4,489,789	3,776,478	2,611,139	2,815,770	1,272,839	1,068,781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A/B)	12.579	12.509	13.965	15.227	15.179 (보정실적)*	12.652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	-	-	100	100	100

\* '20년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보정 전 실적치 14.140, 평점 38.460

##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 가. 평가개요

#### 지표산식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성과 평점 × 0.8 + 청소년지도자 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 × 0.2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 성과 =  $\frac{\text{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text{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수}}$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효익성 지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407 최저 : 0.125	0.342	81.447	2.400	1.955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	목표대실적	100	83.816	83.816	0.600	0.503
합계					3.000	2.458

###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연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표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증대 성과’와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를 각각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하여 0.8과 0.2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3점에 반영하였다.
- '21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7,676명 중 2,623명이 참여하여 최고목표 0.407에 하회하는 0.342의 실적으로 평점 81.447점을 달성하였고, 청소년지도자연수 효익성 지수는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효익성) 83.816점을 달성하였으며 두 개의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3점 중 2.458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문연수 수료인원 증대를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설계, 수련시설 종사자 교육비 무료 지원 기반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전년 26.610% 대비 7.561%p 증가한 34.17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의 효익성 지수는 청소년지도자 온라인연수원 기능강화, 청소년활동 분야 이러닝 콘텐츠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전년도 83.425점 대비 0.391점 증가한 83.816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중 전문연수 수료인원 비율은 2016년 8.036%, 2017년 8.115%, 2018년 11.884%, 2019년 18.049%, 2020년 26.610%, 2021년 34.17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는 2016년 83.586점, 2017년 83.238점, 2018년 82.782점, 2019년 86.466점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 83.425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83.81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문연수 참여인원(A)	676	721	1,028	1,499	2,025	2,62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B)	8,412	8,885	8,650	8,305	7,610	7,676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A/B)	8.036	8.115	11.884	18.049	26.610	34.171
지도자 연수 효익성 지수	83.586	83.238	82.782	86.466	83.425	83.816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과 “미래 청소년 활동 가치혁신 리더, D-KYWA”라는 기관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비전과 경영목표 간의 연계성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경영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략롤링을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경영목표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청소년활동 제공기관 지원, 미래 청소년활동 선도, 청소년지도인력 역량 강화 등의 세 가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PBL 효과 유의성, 역량기반 적용기관 비율, 수련시설 종사자 전문연수 참여비율 등의 계량성과지표와 미래청소년활동 전환 기반 조성 등의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여 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달성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각 지표는 기관 대상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청소년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도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폐지된 지표인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운영 정착”의 경우,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된 지표로 관리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사업진행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민제안 비대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공모전을 통해 4개 영역의 온라인 협업모형을 발굴하였으며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언제든 전환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PBL 모델을 개발 보급하였다. 이러한 기관 노력을 통해 국제교류 활동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지고 재참여 희망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관은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선진기관에서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관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기관과 주요사업 측면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진행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 선진 기관의 경쟁역량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량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교육과정 연계활동 차원에서 개발한 활동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장애 청소년 혹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차별화된 사업 진행이 요구된다.
- 기관은 기존 수행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별한 관리기술 없이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설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기관장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등 DT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내외 최초로 청소년 시설 전용 DT진단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만 현재 기관에서의 DT 관련 대응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에 비해 앞선 수준이라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기관이 설정한 '21년도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결부되어 온라인 연수원 이용인원은 달성률은 목표치보다 54.7%p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주제 등 활동 전환 지원을 통해 봉사활동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고 이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및 역량기반 활동의 실효성 제고 노력도 국정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다만 달성률이 미흡했던 “수련시설 종사자 전문연수 참여 비율”의 경우,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 가급적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신기술 활용 교재 부재상황을 극복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을 개발해 '21년도 시범 적용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교육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학습자 니즈를 반영한 교육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에서도 시류에 맞춘 단순한 사업 진행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계획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의 성과를 “만족도” 측정에서 벗어나 보다 진화된 측정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내부 사업별 실적관리시스템과 성과평가 위원회 및 운영기관 협의체 혹은 사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혁신단 등의 외부 채널을 이용한 자체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성과의 환류에 있어서 단순한 성과의 나열보다는 이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부족한 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기관이 제시한 많은 비계량 지표는 정량적인 성과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는 계량지표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20년 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중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전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21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22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한 측면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1) 국립청소년시설 운영사업 지표구성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국립청소년시설운영의 청소년수련활동 품질개선성과 지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신뢰성 제고 성과 평점과 효익성 지수 평점을 각각 0.6, 0.4의 가중치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대표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그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있어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지표의 경우 국립청소년시설 이용 인원수 대비 취약계층 활동지원 인원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대표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국립청소년시설운영의 청소년수련활동 품질개선성과 지표 및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의 경우 기관의 대표사업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나, 기관이 청소년활동 대전환을 위하여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소 협소하게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국립청소년시설운영의 청소년수련활동 품질개선성과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정한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로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정한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는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청소년 확대를 통한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를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지표 계산에 활용되는 실시 인증 프로그램 수와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수는 코로나19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외부 영향이 적고 기관의 대응 및 관련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에도, 전체 종사인원 대비 참여 비율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정성 확보 성과 지표는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지표의 두 가지 세부지표인 인증 활성화와 참여 청소년은 각각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부여하였고,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 또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의 목표수준은 목표부여(하향) 방식으로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는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본 사업의 효과적 진행운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는 지표 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성과 지표는 지도자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비율과 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을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 지표 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의 세부지표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성과 지표의 전문연수 수료비율은 목표부여(편차)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은 국민평가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두 세부지표 모두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총평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1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부여(하향) 방식을 채택하여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 품질개선성과 지표 및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의 경우 기관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의 경우 외부환경에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표는 교육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 3 혁신성장 가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LED 식물재배기 활용 스마트팜 체험지원 등 혁신기술 교구재를 활용하여 혁신성장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센싱기술을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방역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유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창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목표를 바탕으로 지속성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혁신성장

#####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LED 식물재배기 활용 스마트팜 체험지원, VR을 활용하여 작은 학교 대상 체험캠프 등 혁신기술 교구재 연구 및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수요 창출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3D 프린팅, IoT 등 여러 혁신기술들을 융합하여 청소년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센싱기술을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방역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 데이터 품질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청소년 이용공간 및 활용 정보 데이터 활용도를 증대하였다. 다만,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창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식물재배기, 수중드론의 구매 판로를 지원하여 민간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하였다. 다만, 기관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성있는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혁신성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sup>0</sup>”로 평가한다.

## 4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인건비 인상금액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기간을 계기로 업무처리방식과 교육방식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 기관은 한국판 뉴딜 2.0에 맞추어 4개 과제로 재구성하고 디지털화를 활용한 청소년 서비스의 성과가 일부 실현되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 ①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 기관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금액 11.62%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상권 살리는 데 동참하고 매월 급여 1%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을 하였다. 국립청소년시설 입점 업체에게 임대료 감면 수준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였다.

#### 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청소년활동 시설 548개소에 6천만 원 수준의 방역물품을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을 지원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국립 청소년 시설 3군데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기여를 하였다.

#### ③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한국판 뉴딜 2.0 발표에 따라 기관의 과제를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재편하고 사업별로 핵심성과지표를 두어 평가하고 우수성과 포상과 가점을 부여

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였다. 청소년 전용공간 정보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동시에 그린뉴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